

[큐티 클리닉 7]

읽기의 목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이상규 목사 / 2001 / 페이지수: 2

성경을 읽지 않은 그리스도인 마치 병어리와 같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가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요, 거짓말이 될 수 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모토 중의 하나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었다 외적형식과 피상적 열심에서가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들을 때 진정한 개혁과 삶의 변화가 온다.

천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히 4:12)

그러므로 큐티에서의 본문읽기의 목표는 분명하다.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성경은 기록된 문자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광야 40일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오직 “기록되었으되”(마 4:4,7,10)하시면서 문자화된 신명기 말씀을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심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성령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잘 들을 수 있겠는가?

경외하며 사모하며

첫째는 그 무엇보다도 경외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성경의 언약관계는 십자가에서 보듯 쌍방간에 목숨을 건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피로 맺은 관계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주님, 왕, 목자, 신랑이신 그분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약의 책인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이 열리는 것이다.

혹시 본문이 잘 알려진 너무나 익숙한 내용일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낯설게 하기’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친숙하면 선입관으로 인해 본문에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펜을 들고 현미경적 시각으로 자세히 읽기를 시도하거나 영어 성경으로 본문을 읽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둘째로, 정해진 본문을 읽으라. 그때그때 아무데나 펼쳐 읽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읽으면 요행주의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성경만 가지고 큐티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먼저 성경 66권 중 한 책을 결정한 후 매일 한 단락씩 묵상하는 것이 좋다.

길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구름 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던 것처럼 먼저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순수하게 본문만을 3~4번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셋째로 성령의 인도에 민감 하라. 본문을 읽다보면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단어, 주제들을 만나게 된다.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일단 어떤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이 느껴진다고 여겨지면 일단 그 말씀들을 주목하고 그 구절에 머물러 계속 생이 나오듯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인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만약 더 이상의 임재와 감동이 없다면 그 구절이 아무리 유명한 내용이라도 미련 없이 지나가라. 큐티에서는 성령님의 임재와 주도적 인도에 민감히 따라가는 것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때에 감동과 깨달음이 샘솟듯 계속되는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집중적으로 묵상해 가면 된다.

*** 출처 : 큐티와 일대일**